내년부터 사미(니)계 수계 기준 '승랍' 기산

조계종 222차 중앙종회, 처리 안건은

'승려법' 가결…2022년 시행
법계 자격완화 개정안 가결
특별재심 '호계원법'도 개정
사회법에 의한 무력화 방지
'종무원법'은 격론 끝에 부결
11일엔 정족수 미달로 유회


조계종 중앙종회는 11월 10일 제222회 정기회를 속개하고 종법 제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내년 10월부터 조계종 스님들의 승랍은 사미 · 사미니계 수계일을 기준으로 일괄 기산된다. 승랍기산 기준이 통일됨에 따라, 그동안 일부 불이익을 받거나 출가시점과 관계없이 승랍에 차이가 발생해 제기됐던 문제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정문)는 11월 10일 제222회 정기회를 속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승려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도심 스님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승랍기준이 시대적 변화에 맞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조계종의 기존 승랍기산은 구족계 수계일을 기준으로 종단 기본교육기간인 4년을 더하는 방식이었으나, 기본교육기관 입학 시기에 따라 승랍에 차이가 나는 등의 부작용이 지적돼 왔다.

종회는 해당 법안을 논의한 결과, '비구 · 비구니계를 수지한 자에 한하여 사미 · 사미니계 수계일로부터 기산한다'로 수정개정안을 최종 통과했다. 이번 정기회에서 '승려법'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기본교육기관 이수 및 구족계 수계와 관계없이 승랍이 기산된다. 총무부가 원만한 행정절차 진행을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시행일은 2022년 11월 10일로 확정됐다. 총무부에 따르면 종법 개정시 승랍이 조정되는 해당자는 4901명으로, 법 개정에 따라 승랍 조정 이후 승려번호 조정을 비롯해 승려증 재발급 등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의 지원자격 요건을 체계화하는 내용의 '법계법' 개정안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대종사 · 명사 법계 특별전형의 자격 기준을 체계화해 수행력과 지도력을 두루 겸비한 스님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승려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승려법 개정안은 그동안 사미 · 사미니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해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됐다.

이에 따라 제45조 징계 중 공권정지 항목에 '집행기간 중 각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사미 · 사미니는 징계기간 중에는 구족계를 수지할 수 없다' 조항을 신설했다. 그동안 공권정지의 징계 대상이 소임을 맡고 있는 스님에 한정된 데 따른 형평성 문제가 일부 개선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호계원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호계원법 개정안은 국가 사법기관의 판결에 따라 징계의 집행이 제한된 경우 특별재심을 통해 신속하게 징계에 대한 심판을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계종 사찰의 주지가 신체와 정신적인 병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교구본사 주지의 제청과 총무원의 의결을 거쳐 직무정지 후 사찰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종무원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그러나 해당 조항의 특성상 적용 사례가 다양한데다, 예측불가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내재된 만큼 논란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결국 투표를 통해 가부를 결정키로 하고 거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출석의원 59명 중 38명이 찬성을 선택했지만, 2/3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한편 중앙종회는 이날 종법 제개정안과 종책질의를 끝으로 정회하고, 11월 11일 속개해 내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과 인사안건, 각종 특위 구성의 건 등을 논의키로 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유회했다. 예산안을 처리하는 결산종회가 성원되지 못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매도해 논란을 빚었던 정청래 의원과 관련, 집행부의 대처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종회는 11월 16일 회기일까지 종회의원 스님들의 참석을 독려할 계획이다.

〈차주상보〉

원행 스님, '파키스탄의 별' 명예훈장 수상

11월11일 양국수교 38주년 맞아 한국인 두 번째…평화 증진 공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파키스칸 정부로부터 명예훈장을 받았다.

원행 스님은 11월 11일 서울 롯데호텔 3층에서 열린 '한국-파키스탄 수교 38주년 기념 VIP초청 리셉션'에서 뭄타즈 자흐라 발로치 주한 파키스탄 대사로부터 명예훈장 '파키스탄의 별'을 받았다.

'파키스탄의 별' 명예훈장은 매년 파키스탄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각 분야별로 공로가 있는 인사를 선정, 수여하는 것이다. 원행 스님은 한국-파키스탄 평화 활동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국인으로는 2018년 송종환 전 파키스탄 대사 수상 후 두 번째 수상이다.

이번 명예훈장 수상은 원행 스님이 2019년 11월 19~24일 파키스탄을 국빈 방문한 인연으로 이루어 졌다. 당시 원행 스님은 조계종 대표단 40여 명과 함께 '부처님 고행상'이 있는 라호르 박물관을 비롯해 대승불교와 불교예술이 번창했던 유적지와 순례길을 방문한 바 있다. 당시 방문에서 맘눈 후세인 대통령과 임란 칸 총리 등을 만나 한국 불교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파키스탄 불교 문화재 보존 및 복원관련 기술 교류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뿐만 아니라 간다라 불교 문화 유적 복원을 위해 훈두박물관에 종단 지원금 5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뭄타즈 자흐라 발로치 주한 파키스탄 대사는 명예훈장 수여에 앞서 신라시대 혜초 스님이 파키스탄 지역을 방문했던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한국과 파키스탄의 그간의 우정을 설명한 대사는 "원행 스님은 수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양국간 유대관계를 다시 활성화하고 한국인들이 파키스탄의 불교유산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해 파키스탄 대통령을 대신해 국가훈장을 수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사로부터 명예훈장을 전달받은 원행 스님은 먼저 2019년 파키스탄 방문을 떠올리며 불교유적을 잘 보존하고 간직해 온 파키스탄 정부에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원행 스님은 "조계종 사부대중은 한국, 파키스탄 간 우호와 평화 증진을 위한 노력에 힘을 모아 양국간 문화적 교류가 더욱 깊어지는 데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오랜 역사 속 문화적 공감대를 함께 한 만큼 앞으로도 양국의 상호 인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사에게 백제금동대향로를 선물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임은호 기자

나눔의 집 내홍 심화…11개 안건 중 1건 처리

11월 9일 논란 속 8차 임시이사회 개최

신임감사 인사안만 가결
김미선 · 우봉 스님 선임

나눔의집 정상화를 두고 임시이사회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임시이사 5명이 이사회를 앞두고 다른 이사들을 '조계종 측 이사'로 지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사실상 '편 가르기'식 행보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임시이사회 체제에서 나눔의집 정상화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임시이사회는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미 양분화된 상황에서, 정상화 방안에 대해 일치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나눔의집 임시이사회는 11월 9일 나눔의집 교육관에서 제8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는 총 11명의 이사 가운데 스님이사 4명을 포함해 9명이 참석했다. 이번 이사회는 개최 전부터 이사들이 양분화돼 한쪽에서는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반대쪽에서는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내는 등 내부 갈등이 극에 달한 모습을 보여 우려를 낳았다.

2시간여 열띤 논의에도 11건의 안건 중 추천감사 선임의 건 1개만 처리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로부터 추천받은 김미선 공인회계사와 정식이사들이 추천한 우봉 스님 2명이 감사로 선임됐다.

이번 임시이사회는 시작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다. 특히 신임이사로 선임된 최종환 임시이사는 개회에 앞서 이찬진 임시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5명의 임시이사들이 스님이사들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자신을 '조계종 측 임시인사'로 표현한 점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최 이사는 "100만 사회복지사를 대표하는 사회복지협회에서 부회장, 윤리위원 등을 맡는 등 사회복지계 전문인으로서 이 자리에 왔지만, 조계종 측 이사로 매도하는 분위기가 참담하다"며 "편가르기 식으로 양분된 상황에서도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원칙적이고 투명하게 원칙과 양심에 따라 이사직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논란이 됐던 이사회 공개여부 역시 논의 끝에 결국 비공개로 진행됐다.

나눔의집 정상화를 이끌어야 할 임시이사회가 1년 가까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면서 정상화는 요원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변화는커녕 되레 양분화 형국으로 내부갈등만 악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한 사회복지계 관계자는 "나눔의집 사태 이후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고 여전히 내부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임시이사회가 난항을 겪는 것은 예견된 상황"이라며 "나눔의집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안정적인 보호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라도 주무관청인 경기도와 광주시가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차기 이사회는 12월 22일 오후 2시 나눔의집 교육관 1층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 광주=임은호 기자 imeunh@hyunbul.com

조계종, 미얀마 지원기금 1억900만원

로터스월드 등 불교계NGO단체에 긴급식량 · 방역물품 지원 예정


원행 스님은 11월 10일 미얀마 민주화 기원 성금 1억900만 원을 전달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이 쿠데타와 코로나19로 인해 고초를 겪고 있는 미얀마를 위해 자비의 손길을 건넸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11월 1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미얀마에서 국제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불교단체들과 미얀마 민주주의네트워크에 미얀마 민주화 기원 성금 1억900만 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로터스월드, 지구촌공생회, 더프라미스 등 국제국호단체에 각각 2600만 원, 미얀마민주주의네트워크에 3100만 원이 전달됐다. 각 단체들은 기금을 쿠데타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을 위한 긴급 식량과 방역물품 지원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원행 스님은 이날 모인 불교단체 대표들에게 종단을 대신해 미얀마 국민들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은 "지부가 속해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민주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미얀마 국민들을 지원하겠다"고 감사를 표했다.

더프라미스 묘장 스님도 "불자들의 정성을 잘 나누겠다"고 말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선거, 민주주의, 자유'를 의미하는 세 손가락 경례로 기념촬영을 하며 미얀마 민주화를 기원했다.

임은호 기자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